

# ‘지방 역사문화서, 한국적 판타지, 보통 사람의 구술역사’ 등

## 부박한 세대 탓은 그만, 다양한 연구·기획 노력 필요

글 | 김승호

### 독해와 사유의 즐거움 모르는 독자들

책이 점차 영상매체, 전자 출판물, 인터넷 등에 밀려 그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우울한 진단이 내려진 지 벌써 오래되었다. 과연 젊은 세대일수록 과거의 권장도서, 고전목록에 더 이상 눈길을 주려 하지 않는다. 간혹 교복 차림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서점의 고전 코너에 서서 정신없이 책읽기에 몰입하지만 자발적인 풍경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기껏 눈술이나 언어영역에서 일정 이상의 독서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억지 춘향격으로 잠시 책에 눈길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런 세대는 날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책이 지닌 효용성을 강조하면서도 독해와 사유의 과정을 따분하게 여기면서 다른 것에서 재미를 찾으려 드는 풍조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출판계의 앞날이 더욱 어둡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온통 부박해진 세대 탓으로 돌리기보다, 지식인부터 나서 독서의 필요성과 가치를 고취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출판계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기획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진력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어쭙잖은 진단이 될 터이나 그런 맥락에서 출판계에 다음과 같은 책의 발간을 권하고 싶다. 필자가 궁리하고 있는 방향은 1. 지방 역사문화 관련 안내서 2. 한국적 판타지 소설 3. 우리 시대의 전기총서(평전, 자서전 등) 4. 보통 사람들의 구술역사 등으로 대략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우리 시대의 동국여지승람’ 펴낼 만

우선, 지방 역사문화 관련 안내서의 출판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쉽게 말해 이는 우리시대의 동국여지승람을 기획해 보는 일이다. 세종 때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팔도의 인문과 지리를 총망

라한 내용으로 당대 유명한 학자들이 대거 동원된 국책사업의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유의 거대한 지방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말로만 지방자치, 혹은 지방화 시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 단위별로 역사, 인물, 산물들을 포함한 풍성한 내용의 안내서가 새롭게 선보여야 한다. 1980년대 초 문공부의 관할 아래 각 행정단위의 군지, 읍지 등이 한꺼번에 출간된 일이 있었으나 행정단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간행된 데다 새로운 내용 없이 과거 기록을 그대로 베끼는 선에서 나아가지 못한 생색용이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일정 행정구역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곳의 땅값에만 민감할 뿐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땅 어느 곳이 되었든 곳곳마다 풍성한 역사와 위대한 인물과 화려했던 유적지였음을 애써 외면한 채 살고 있는 셈이다. 각처의 지역지, 지방지가 출간되어야 할 이유는 이처럼 자명하다. 안내서라고 해서 논문이나 보고문 식의 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영상세대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진이 풍성하게 곁들여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행객을 위해 상세한 지도를 제공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동아시아적 시각 혹은 민족의 심상에 비탄한 판타지

두 번째, 한국적 판타지의 발굴과 출판을 권하고 싶다. 판타지는 서구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판타지 소설의 전형을 꼽으라면 당연히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 포터’ 시리즈를 꼽는다. 이 작품들은 중세 유럽의 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며 초월적 공간과 마법 따위를 버무려 현대인

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하지만 판타지가 유럽적 문화와 전통 안에 서만 산출된다고 주장한다면 역지가 아닐 수 없다. 판타지의 속성을 헤아릴 때 우리도 얼마든지 개성 있는 판타지 문학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일찍이 이규보는 고려 중기까지 이야기로만 전해오던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동명왕편>이란 영웅서사시로 탈바꿈시켰다. 한반도가 중국 변방에 붙은 소국이라는 열등감은 적어도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지상에서 이역만 팔천리에 이르는 천상으로부터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가 오룡거를 대동하고 순식간에 지상으로 내려와 영웅들과 쟁패를 겨루는 장엄상은 상상하기조차 벽차다.

과거 영웅들은 단순히 지상에 머물지 않으며 광막한 우주, 용과 이물이 사는 용궁까지 거침없이 치달으며 싸우고 사랑하고 최후의 승자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만화, 게임 등이 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적 판타지의 전형이라고 말할 만한 작품은 아직 없다. 동아시아적 시각 혹은 민족의 심상에 바탕을 둔 판타지의 출현은 서구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젊은 세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상상과 환상의 세계마저 수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발하고 창조하여 이를 역수출해야 할 때이다.

### 이 시대 성공한 이들의 자전적 위인전

세 번째로 우리 시대 인물들의 전기를 간행하길 권유하고 싶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부모들이 빠짐없이 아이들에게 사다주는 것이 바로 세계위인전이다. 위인들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장차 삶의 좌표로 삼도록 하는 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시대, 인물에 있어 목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터인데,

권장 위인들이 존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과연 그같은 인물에 근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나 회의감부터 앞서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위인전도 의미가 있지만 이 시대 이 땅에서 성공한 이들의 전기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전기기술에 있어서도 제삼자에 의한 객관적 기술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말하는 자서전 형식을 적극 모색했으면 한다. 이는 독자의 흡입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당대사를 재연해 주는 현장담 개인의 구술역사

네 번째로 보통사람의 체험에 바탕을 둔 구술역사물의 출판을 권하고 싶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삶을 보냈다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시대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역사란 거대담론은 개인의 사소한 일, 흥미진진한 일화 같은 것은 삭제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중요 이슈 위주로 재편된 구조물이므로 그에 대해서만 신뢰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술역사는 기록의 능력은 없으나 갖가지 뼈저린 체험의 당사자와 어울린다. 이들의 말은 정연한 역사담론은 아니지만 소설 이상으로 흥미진진함과 생생한 교훈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역사를 잡아줄 수 있는 획기적 사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에 관심을 둔 이들은 드문 성실다. 8·15, 6·25, 4·19 등 격변을 체험한 세대들이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있으며 체험을 갈무리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구술역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적 시각으로는 보잘것없더라도 구술을 담은 과거를 증언해 줄 사적 체험담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받아 마땅하다. 정사가 위정자, 기득권자 중심으로 엮어지는 데 비해 구술역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민중의 자취, 당대사를 재연해 주는 현장담으로서의 의미마저 지니는 셈이다. ■

출판계의 앞날이 더욱 어둡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온통 부각해진 세레 탕으로 돌리기보다, 지식인부터 나서 독서의 필요성과 가치를 고취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출판계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기획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진력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